

석유공사, 유가정보 아이폰으로 제공



석유공사는 5월26일부터 오피넷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를 애플(Apple) 아이폰(i-phone)으로 무료 서비스한다.

오피넷 부가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가정보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.

특히, 셀프주유소, 불법업소, 주변·고속도로 주유소 유가 등 다양한 정보를 증강현실 등 IT 기술과 접목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인근의 저렴한 주유소를 검색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2010년 하반기에는 안드로이드 등 다른 스마트폰으로도 오피넷 유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. 아울러 기존 서비스의 품질과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유가정보를 언제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05/26>